

2017년 4월 21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세계개편 기대에 힘입어 상승 나스닥, 종가상 사상 최고치 경신

므누신 “세계 개편안 빠른 시일 내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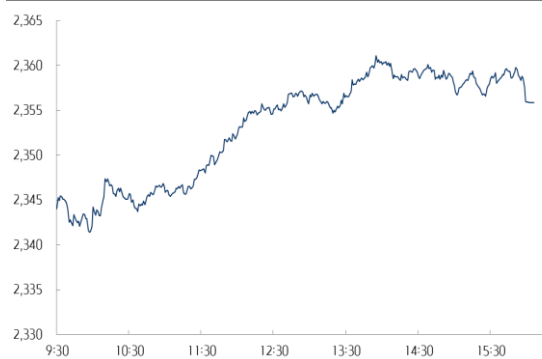
유럽증시는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마크롱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특히 프랑스는 BNP파리바(+3.96%), 푸조(+3.89%) 등이 상승 주도하며 1.48% 급등. 미 증시는 실적 개선 기업들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 이후 프랑스 대선 불확실성 완화 및 미 재무장관의 세계 개편안 관련 발언에 힘입어 상승 확대(다우 +0.85%, 나스닥 +0.76%, S&P500 +0.92%, 러셀 2000 +1.24%).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IMF 및 WB 춘계회의에서 “주요 세계 개혁 법률안 상정 시기가 매우 근접했다” 라고 주장하자 강세를 보이던 미 증시는 상승을 확대. 지난 화요일 트럼프가 므누신 재무장관과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조세 개혁에 있어 매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데 이어 나온 발언.

한편, 공화당지도부는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ACA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하기로 했다” 라고 발표. 이러한 소식은 ‘정부의 세계개편안 제출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는 역할. 실제 세계 개편안과 관련된 일정이 지연된 이유는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에 실패에 따른 결과.

더불어 폴 라이언 미 하원 의장은 “올 여름이 끝나기 전 가능한 빠른 시일에 세계 개혁안을 통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주장. 다만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세계 개혁안이 올해 안에 의회 통과를 못할 수 있다” 라고도 언급했는데 이는 “공화당 내부에서 8월 이전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 실제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은 공공 부채 급증을 반대하고 있으며, 법인세율 인하 이후 부족한 세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부담.

S&P500 일종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2,149.15	+0.50	홍콩항셱		24,056.98	+0.97
KOSDAQ		635.80	-0.03	영국		7,118.54	+0.06
DOW		20,578.71	+0.85	독일		12,027.32	+0.09
NASDAQ		5,916.78	+0.92	프랑스		5,077.91	+1.48
S&P 500		2,355.84	+0.76	스페인		10,372.50	+0.02
상하이종합		3,172.10	+0.04	그리스		674.40	-0.67
일본		18,430.49	-0.01	이탈리아		19,849.44	+0.13

자료: 키움증권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철강주 급등

US스틸(+7.35%), AK스틸(+8.60%) 등 철강업종은 트럼프가 목요일에 외국산 강철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해칠지 여부를 신속히 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를 보였다. 의류 소매업체인 갭(+4.95%)은 제품판매 안정과 이익 개선 기대가 높으며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강세를 보였다. L브랜드(+2.39%), 노드스트롬(+2.88%), 로스스토어(+1.46%)도 동반 상승했다.

애플(+1.25%)도 이익 개선 기대로 모건스탠리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데 힘입어 상승했다. CSX(+5.60%)는 양호한 실적과 배당금 인상과 자사주 매입 발표로 상승했다. 유니온퍼시픽(+1.04%) 등도 동반 상승했다. 웰스파고(+2.59%), BOA(+1.45%) 등 금융주는 세계개혁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다. 더불어 파월 연준이사가 "금융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한 점도 상승요인이었다.

반면, Ebay(-3.91%)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2분기 전망치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자 하락했다. 필립 모리스(-3.45%)와 버라이즌(-1.08%)는 실적 부진 여파로 하락했다. 장마감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마텔(+0.40%)은 시간외로 7%내외 급락중이다.

주요 ETF_소매판매업종 강세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11%	대형 가치주 ETF	+0.77%
에너지섹터 ETF	+0.31%	중형 가치주 ETF	+0.81%
소매업체 ETF	+1.86%	소형 가치주 ETF	+1.26%
금융섹터 ETF	+1.69%	배당주 ETF	+0.39%
기술섹터 ETF	+0.91%	변동성 ETF	-2.56%
소셜 미디어업체 ETF	+1.45%	대형 성장주 ETF	+0.70%
인터넷업체 ETF	+0.68%	중형 성장주 ETF	+0.96%
리츠업체 ETF	-0.03%	소형 성장주 ETF	+1.19%
주택건설업체 ETF	+0.38%	신흥국 고배당 ETF	+0.80%
바이오섹터 ETF	+0.52%	신흥국 저변동성 ETF	+0.88%
헬스케어 ETF	+0.62%	하이일드 ETF	+0.30%
곡물 ETF	-1.44%	물가연동채 ETF	-0.10%
반도체 ETF	+1.44%	Long/short ETF	-0.5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00.67	+0.39%	-3.51%	-1.26%
소재	327.48	+1.06%	+0.77%	+0.45%
산업재	561.73	+1.08%	+1.27%	+0.84%
경기소비재	703.77	+1.00%	+1.43%	+2.54%
필수소비재	566.03	-0.25%	-0.14%	+0.11%
헬스케어	855.83	+0.55%	-0.16%	-0.71%
금융	388.20	+1.55%	+0.78%	-0.68%
IT	904.70	+0.98%	+1.42%	+0.63%
통신	165.34	-0.26%	-0.61%	-2.17%
유틸리티	261.12	-0.39%	-0.76%	-0.76%
부동산	200.40	-0.02%	+0.94%	+3.9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프랑스 대선 불확실성 완화 주목

MSCI 한국지수는 1.96% MSCI 신흥지수도 1.24%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순매수(663계약)에 힘입어 1.40pt 상승한 279.75pt로 마감했다. 이는 KOSPI로 환산하면 2,160pt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37.6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기업실적 개선 및 프랑스 대선 불확실성 완화로 상승했다. 더불어 오후 들어서는 므누신 미 재무장관의 “세계개혁안 제출 임박했다”는 발언에 힘입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증시의 영향으로 한국 증시도 우호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프랑스 대선 불확실성 완화는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대선 1차 투표를 앞두고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상위 4명의 후보 지지율이 19~23%내의 오차 범위 안에 몰려 있었다. 특히 부동산이 40%가 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았었다. 그러나 전일 부동산이 30%로 줄어들면서 마크롱 후보의 지지율이 25%로 상승한 반면 2위인 르펜 후보는 22%를 유지했다. 결국 마크롱과 르펜이 결선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는 움직임이다.

다만,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등 주요 여론조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는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상승폭이 확대되기 보다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다음주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주 실적 발표가 본격화 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투자심리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필라델피아 연은지수 부진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는 전월(32.8)보다 둔화된 22.0으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고용지수는 상승(17.5→19.9) 했고 재고 지수도 상승(11.8→17.8) 했다. 다만 신규주문이 전월보다 부진(38.6→27.4) 했다.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3만 4천건)보다 증가한 24만 4천건으로 발표되었다.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는 0.4% 상승한 126.7로 발표되었다. 이는 시장 예상치(+0.2%)를 상회한 결과다.

유로존 4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5.0)보다 개선된 -3.6을 기록했다. EU 전체국가로 봐도 전월(-4.2)보다 개선된 -3.4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시장 동향

엔화, 달러대비 약세

국제유가는 사우디 에너지장관이 “5월 OPEC 정례회의에서 산유량 감축합의 연장이 가능하다” 라고 주장하자 장 초반 상승했다. 그러나 OPEC의 지속적인 감산에도 불구하고 미국 셰일오일 기업들의 생산량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며 하락 전환했다. 베이커 휴즈가 이번주에도 미국의 시추공수가 1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되었다.

달러는 부진한 경제지표 영향으로 하락 출발 했다. 더불어 프랑스 대선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도 달러 약세 요인이었다. 다만, 오후 들어 세제개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약세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엔화는 프랑스 대선 불확실성 완화 영향으로 달러대비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프랑스 대선 여론조사 결과 부동산이 감소(40%→30%)한 반면 마크롱 후보의 지지율이 25%로 올라섰다는 점이 부각되며 달러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프랑스 대선 불확실성 완화 및 주식시장 강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더불어 5년만기 TIPS(물가연동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직전 입찰(2.68배)보다 부진한 2.52배로 발표된 점도 영향을 줬다.

금은 달러약세 및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 우려로 상승했다. 구리는 계절적 수요 증가를 예상 하는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상승했다. 최근 중국 정부당국의 투기세력 감시 강화 우려로 매물이 출회 되었다. 특히 과도하게 몰렸던 투기적 포지션이 완화되며 재차 관련된 포지션이 유입된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0.71	-0.28	-5.25	Dollar Index	99.792	+0.05	-0.76
브렌트유	52.99	+0.11	-5.14	EUR/USD	1.0717	+0.06	+0.98
금	1,283.80	+0.03	+0.45	USD/JPY	109.29	+0.40	+0.18
은	18.018	-0.79	-1.54	GBP/USD	1.2815	+0.30	+2.50
알루미늄	1,943.00	+2.09	+1.25	USD/CHF	0.9987	+0.03	-0.73
전기동	5,623.00	+1.20	-2.58	AUD/USD	0.7527	+0.40	-0.54
아연	2,547.85	+3.30	+1.35	USD/CAD	1.3477	-0.06	+1.11
옥수수	364.25	-1.09	-3.13	USD/BRL	3.1587	+0.18	+1.06
밀	421.75	-2.93	-5.49	USD/CNH	6.8836	-0.03	-0.02
대두	956.75	-0.39	-0.21	USD/KRW	1139.8	-0.04	+0.89
커피	134.30	-4.51	-4.48	USD/KRW NDF 1M	1137.6	-0.46	+0.16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234	+1.95	-0.36	스페인	1.687	+2.40	-0.30
한국	2.140	-0.20	-3.50	포르투갈	3.757	-3.50	-10.80
일본	0.020	+0.90	-1.10	그리스	6.600	0.00	+2.60
독일	0.244	+4.10	+5.70	이탈리아	2.254	-1.20	-4.90